

숲속 보석 찾기 여행

안기순 | 번역가

《보물찾기》는 아름다운 삽화와 함께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동화다.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스타더는 소년시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할머니댁 뜰에 구멍을 파면서부터 늘 보물찾기에 대해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무도회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 꿈을 꾸었고 이를 이야기로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쓰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른과 아이 모두 즐길 수 있어야 했고, 책을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물에 다가갈 수 있고, 퍼즐을 풀기도 하고, 이야기 도 읽고, 탐험도 할 수 있어야 했다. 이런 모든 요소를 책 한 권에 담기 위해 궁리를 거듭하던 저자의 노력은 8년 만에 이 책으로 결실을 맺었다.

매일 저녁마다 숲속에 검은 흙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물들이 돌처럼 굳어져버린 후에 사라졌다. 줄지에 짝을 잃은 12마리 동물들은 잃어버린 짝을 찾고, 숲속 동물들을 구하고, 죽어가는 숲을 살리기 위해서 잘 생긴 나무조각가 재크, 반은 요정이고 반은 사람인 재크의 아내 애나, 재크의 어둠을 무서워하는 날개 달린 오동통한 개 푸크와 의기 투합한다.

이 책에는 숲속에서 사라진 12마리의 동물 모양을 한 아름다운 보석 12가지가 숨겨져 있다. 개미, 꿀벌, 나비, 애벌레, 잠자리, 반딧불이, 벌새, 딱정벌레, 무당벌레, 거미, 메뚜기, 달팽이 모양의 보석은 공들여 고안된 흔적이 역력하며 정말 아름답다.

보석이 감춰져 있는 장소에 대한 단서는 책의 이야기 속에 등장한다. 보물을 찾으려면 이 단서를 해독한 후에 정확한 장소로 가서 황금 토권을 찾아야 한다. 황금 토권을 가지면 보물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토권은 미국 전역 12군데 장소에 퍼져 있으며 한 보물과 다른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은 자동차로 하루 정도 달려가면 도착할 정도로 떨어져 있다.

토권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에 숨겨져 있어서 들판을 지나가다가, 길거리를 건다가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다. 문혀 있지도 않기 때문에 땅을 팔 필요도 없고 물건을 옮길 필요도 없다. 특별한 도구나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저 책을 재미있게 읽고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요정의 존재를 믿는다면 누구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보물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보물찾기가 쉽다면야 좀 심겁지 않을까? 보물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하튼 매우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저자가 이 책을 쓰기까지 8년이 걸렸다 하지 않는가!

보물찾기가 이 책이 제공하는 커다란 재미 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동화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거대한 숲속에서 일어나는 우정과 탐욕, 좋은 요정과 악한 요정, 사랑과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다. 또한 가족의 가치, 사랑과 협동, 우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이들에게 서로를 돌볼 뿐만 아니라 자연을 돌보고, 어둠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무엇보다 등장인물들이 재미있고, 상상력 풍부한 삽화가 인상적이다.

텔레비전, 컴퓨터 등의 등장으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책을 읽는 풍경을 보기가 힘든 세상이다. 모처럼 가족끼리 머리를 맞대고 앉아 이야기 속에 빠져 본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

Engl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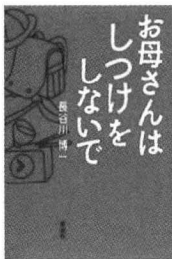


원 제 《보물찾기 A Treasure's Trove》

저 자 Michael Stadther

출판사 Treasure Trove Incorporated

Japanese



원 제_《어머니 너무 가르치지 마세요》
저 자_ 하세가와 히로가즈
출판사_ 草思社

번역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말로 옮기기 어려운 단어 중의 하나가 '시츠키'라는 일본어다. 흔히 예의범절교육이나 가정교육 등으로 번역되곤 한다. 예로부터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아이들 교육에 철저하다는 일본인 엄마들의 가정교육을 일컫는 이 말을, 그리고 그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저자는 일언지하에 뒤집는다.

저자인 하세가와 히로가즈는 토카이조시대학 심리학과 교수이며 전문분야는 심리요법, 학대문제, 청소년문제, 범죄심리, 인격장애다. 이와 같이 임상경험이 풍부한 카운슬러가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가정교육의 후유증'이라고 풀어놓은 충격적인 책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라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어른이 되게 하기 위해서도 이제 그만 가르치라고 하고 있다.

'어머니 너무 가르치지 마세요'라는 책제목이나, 서두 부분의 "이 세상의 어머니들의 마음과 머리에 호소하고 싶다"는 저자의 말이 인상적이다. 그러나 니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이상적인 방법론을 가르쳐주겠다는 그런 종류의 책은 아닌 것이다. 심리학자인 그는 인간은 본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뢰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수용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

이 책은 한마디로 가정교육, 혹은 맹렬교육엄마가 자아내는 후유증'을 이야기한다. 사회환경은 변하였으니 기존의 딱딱하며 지배-피지배 관계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듣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예들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설득력이 있고 보니 눈을 땔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책을 통하여 저자는 현 단계에서는 문제가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훗날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독자들을 계몽시키고자 한다. 문제가 발생하기에 앞서 좀더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사회에서 볼 수 있는 소년범죄자들에게 공통된 점은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지도 그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암전한 아이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오늘날 범죄를 일으킨다는 실례를 거침없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야기한

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성의 부족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라고. 다소 극단적인 흉악범죄 등의 예를 들어 놓은 탓에 불안감만 안겨줄 뿐이라고 판단할 독자도 있겠지만 더 불안해지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착한 아이'라는 평가를 듣는 아이들 중에서도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부모로서 불안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니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저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할 수 있었던 부분은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낙천적인 아이로 키우라는 이야기였다. 그렇다. 인간의 최상의 가치는 '행복'에 있다. 생존경쟁에 지치고 각박하기 그지없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넘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분명 예의범절은 이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린 시절에 어린이답게 지나치 못하고, 어른들의 강요 아닌 강요에 이끌려 자율적으로 생각할 여유조차 갖지 못한다면 훗날 그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교육문제라든지 아이들을 공부로 내몰 수밖에 없다고 정당화하는 어머니들을 탓할 생각도 없고 그럴 자격도 나에게도 없다. 그렇지만 인생의 낙오자란 무엇이며 어떤 인간이 행복한 것일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인간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니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성장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이 책이 자신의 아이를 생각처럼 포용하지 못하고 사랑해 주지 못하는 어머니들에게도, 기존의 잣대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어머니들에게도, 그리고 그런 어머니들의 심정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한다. **유은**

젊은이의 인생 바꾼 어느 여행의 기록

조정훈 | 번역가

“우리는 새로운 곳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한 말이다.

우리는 돈과 시간만 있으면 비행기를 잡아타고 어느 나라든 여행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여행이 주는 심오한 의미와 기쁨은 점점 퇴색해 가는 느낌이다. 현재의 나를 잊기 위해서, 떠나기 전의 기다림과 설렘을 즐기 위해서, 떠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여행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는 여행이 된다면 그 여행은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일상 또는 휴식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행은, 특히 젊은 시절의 여행은 때로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킬 만큼 강렬한 경험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오늘은 20세기 초 한 젊은이가 쓴 조금은 특별한 ‘기행문’ 한 권을 소개하려 한다. 1911년 24세의 스위스 출신 청년 샤를 에두아르 잔느레가 동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한 인상을 기록한 《동방기행 *Le Voyage d'Orient*》이다. 1911년 젊은 건축가 샤를-에두아르 잔느레는 미술사를 전공하는 친구 오귀스트 클립스탱과 함께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출발하여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에 이르는 ‘동방(여기서 동방은 아시아가 아닌 동유럽과 소아시아 지방이다)’으로의 여행을 계획한다. 보헤미아와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거쳐 그리스, 터키를 횡단하는 장장 6개월의 긴 여정이었다.

배를 타고, 기차로, 마차로, 때로는 노새의 등에 올라타고 유랑하며 젊은 잔느레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이국적인 풍광들이 아니라 자신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만큼 강렬한 문화적 충격이었다.

“햇빛이 잘게 부서지고, 장방형 건물 위에 우윳빛 돛 지붕이 부푼 빵처럼 얹혀 있고, 하늘을 찌르는 첨탑들이 솟아 있는, 백악처럼 새하얀 도시” 이스탄불과 도나우 강의 푸른 물에 몸을 담그고 유유히 낮잠 즐기는 물소 떼들, 모스크의 높은 첨탑을 올라 예배시간을 소리쳐 알리는 ‘뮤에진’ 들... 잔느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던져주는 인상을 마치 인상파 그림처럼 강렬하고도 감동에 찬 필치로 묘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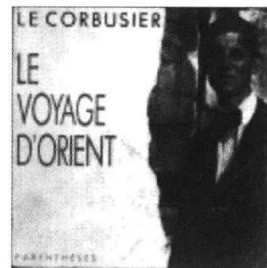
그리고 6개월 동안의 유랑 끝에 마침내 잔느레

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파르테논의 위대한 건축이었다. “나는 이 언덕이 어쩌서 예술과 사상의 중심지라는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이 사원이 완벽하고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날 것이라 추측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아크로폴리스의 언덕의 조거비에 쌓여 마치 진주처럼 희게 빛나는 파르테논”을 보는 순간 그는 “백여 개의 청동나팔들이 한꺼번에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는 듯한 충격에 빠진다. 이후 그는 4주 동안 파르테논 주변을 돌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전의 기둥과 들보를 관찰하고 꼼꼼히 스케치하며 보낸다.

생소한 이름 같지만 샤를 에두아르 잔느레는 훗날 20세기를 대표하게 되는 위대한 건축가, ‘르코르뷔지에’의 본명이다. 1914년 이 기행문은 프랑스의 한 출판사가 출판을 약속했지만 마침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출판은 무산되었고 원고는 르코르뷔지에의 서재에서 54년 동안 먼지를 맞으며 쌓여 있다가 1965년에야 마침내 책으로 발행되었다.

벌써 백 년도 더 된 한 서양인의 여행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되물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 ‘기행문’은 앞에서 말한 ‘목적’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감행한 그리고 한 젊은이의 인생에 격회와도 같은 영향을 미친 강렬한 여행의 기록이다. 나에게 시간이 있다면,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이 젊은 예술가의 여정을 따라 그가 느끼고 보았던 인상을 다시 한 번 경험해보는 여행을 한번 ‘감행’해보고 싶을 정도로... **추천**

French



원 제_동방기행 *Le Voyage d'Orient*

저자인_샤를 에두아르 잔느레(르코르뷔지에 Le Corbusier)

출판사_파랑테즈 Parenthese

예술에서 만난 두 여자의 우정

김재혁 | 번역문학가 · 시인 · 고려대 교수

German



원 제 《클라라와 파울라(Klara & Paula)》
저 자 구나 벤트 Gunna Wendt
출판사 오이로파 Europa

여류화가 파울라 베커와 여류조각가 클라라 베스트호프라는 이름을 들으면 릴케라는 이름이 저절로 떠오르고, 또 릴케가 사랑의 에토스로 내세웠던 “소유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이 생각 속을 맴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의 장소적 배경이 되어주었던 북부 독일 브레멘 근교의 화가촌 보르프스베데의 바람이 느껴지고 그 바람의 무게에 휘어진, 시냇물가의 나뭇가지 그림이 보인다. 그곳은 20세기로 넘어오기 직전 하인리히 포겔러를 비롯한 몇 사람의 젊은 화가들이 촌락을 만들어 그 습한 늪지의 풍광 속에서 이른바 유겐트슈틸이라는 새로운 화풍을 개척한 곳이다. 다시 말해 예술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세가 이들의 생활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것이다.

파울라 베커와 클라라 베스트호프가 그곳에서 처음 만난 것은 1898년의 일이다. 그 뒤 그들은 절친한 친구가 되어 늘 함께 생활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눈다. 그들은 파리에 가서 반년간 함께 생활하고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던 중 1900년 루 샬로메와 함께 갔던 두 번째 러시아 여행에서 루와 헤어져 혼자 독일로 돌아와 보르프스베데를 찾은 릴케가 이 두 아가씨들과 친하게 지내게 된다. 그 중 릴케가 더 마음에 두었던 여자는 파울라 베커였다. 그러나 그녀가 1901년에 그곳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던 화가 오토 모더존과 결혼하자 릴케는 같은 해에 클라라 베스트호프와 결혼식을 올린다. 그러나 모더존과 결혼한 파울라 베커는 1907년 두 번째 아이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난다.

구나 벤트는 이 책 《클라라와 파울라》에서 이렇게 1898년에 시작되어 1907년 파울라 베커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중단된, 짧지만 축제와 같았던 강렬한 우정의 현장을 거의 소설에 가까운, 그러면 서도 객관적인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 이 책은 한 사람의 전기가 아닌 서로 성격이 아주 다른, '분위기 있고 섬세한' 파울라와 '힘차고 의지가 굳은' 클라라 두 여류 예술가 사이의 예술작업과 영적인 교류를 주된 테마로 삼고 있다. 사실 그 둘 사이를 결합시켜준 것은 무엇보다 예술이었다. 이들의 예술 활동은 보르프스베데와 파리를 중심으로 하여 펼쳐진다. 구나 벤트는 두 사람의 교육적 배경, 예술적 작업의 여건, 생활환경 등 세세한 부분을

자료를 근거로 하여 파헤치면서 당시에 재능은 타고났지만 여자로서 예술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일일이 탐색해 들어간다. 그들은 힘들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준 예술적 동지였다.

그러나 파울라 베커의 예술적 추구는 결혼생활이라는 이중고의 여파로 좌절된다. 이것을 릴케는 그녀에게 바친 〈어느 여자 친구를 위한 진혼곡〉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삶과 위대한 작업 사이에는 / 어딘가 해묵은 적대감이 있으니까요.” 사뭇 릴케가 주장했던 ‘소유하지 않는 사랑’의 의미와 버지니아 울프가 여성의 독립의 절대적 조건으로 내세웠던 약간의 금전과 ‘자기만의 방’이라는 모토가 생각난다. 당시의 보수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예술가로서 자립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심지어 남편을 적대적인 존재로 생각까지 해야 했음을 뜻한다. 클라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클라라가 끝까지 자신의 예술행위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결혼을 하면서까지 ‘서로 상대방을 위한 고독의 파수꾼’이 되어주자고 요구했던 아웃사이더 성향의 릴케의 존재로, 그의 끝없는 고독한 방랑생활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예술을 추구하는 두 여자 친구 사이의 우정과, 그 우정이 서로의 예술을 통해 어떻게 승화되는지 작가의 섬세한 눈길을 통해 그 현장을 둘러볼 수 있을 것이다. **추천**